

양 건
 가우건축사사무소
 by Yang Gun

어느 지방건축사의 일상

One Local Architect's Daily Life

제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대학교도 아닌 서울소재 대학에 유학 보냈다고 자랑스러워하던 부모님의 기대를 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내려와 사업을 한답시고 조그만 설계사무소를 차려놓은 평범한 지방 건축사의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 7시 30분

오늘 새벽까지 붓듯이 마신 술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신이 혼미하다. 아내가 출근한다며 깨우지만 몸은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한참이 흘렀는지 둘째, 셋째 녀석이 유치원에 갈 시간이 넘었다며 성화를 부리니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다. 아내와 큰애는 벌써 출근한지 오랜 시간이다.

오전 10시

유치원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거의 매일 지각하는 딸애들을 들여보냈다. 이 유치원을 설계한지도 벌써 2년이 넘어 동네에서는 이름난 유치원이 되었고, 이제 아이들도 아빠가 우리 유치원을 설계한 건축사라고 우쭐해 하며 잘 다니고 있다. 얼마 전에는 7살 반인 햇님반 친구들에게 유치원의 탄생비밀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학 강의 7년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예상외의 질문에 당황스러워 진땀을 흘렸다. 문득 애들의 분위기를 휘어잡고 가르치는 젊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워 보인다.

오전 10시 30분

평상시보다 한 시간 이상이나 늦었다. 사무실 식구들은 벌써 자신의 일에 열중한 모습이다. 소장으로서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다. 오실장은 오늘 2시까지 전자 입찰에 투찰한다고 보고한다. 작년 말에는 오실장 덕에 개업 6년 만에 처음으로 2등과 총액1원 차이로 낙찰되었는데, 설계를 하려면 우선은 '운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우리네 현실에 쓴웃음만 흐른다. 하여간 그 덕으로 올해 초는 전복양식장이라는 특수시설을 설계해야 했다. 사람이 살 집을 자신 있는데, 그 비싼 전복이 살 집을 설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하기가 세상에 쉬운 설계가 어디 있으랴!

오늘은 해양경찰대의 해안초소라니 조금 경직된 사고만 벗어나면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제주도에서 으름인 절경에 집을 지으면서도 발주청의 건축적 마인드는 그리 훌륭한 편이 아니니 어느 건축사가 낙찰되든 쉽지 않은 프로젝트일 것이다. 이런 일들은 현상설계를 해서 조금 수준 있는 설계를 하면 항상 외치는 '제주 해안경관'의 개선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겠는데, 실제 현상설계를 참여하는 우리들도 힘들지만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들은 무척이나 피곤한 업무로 생각하니 좀처럼 현상설계로 치러 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전 11시

요즘 진행 중인 한라 문예회관 현상설계의 배치계획에 대한 내부 미팅이다.

이번 현상은 응모자격에 실적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제주 소재 업체는 실적이 없어 참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다행히 양소장님의 사무실에 실적이 있으니 파트너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 어렵게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내심 오기가 생기는 프로젝트이다.

사실 현상공모라는 것이 작품을 미리 평가하고 선정하는 것인데 실적제한 같은 선행 조건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우리 같은

신인들은 어느 세월에 실적을 쌓아 현상공모에 당당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안타까움이 드는 현실이다. 하여간 어저서야 컨소시엄을 맺은 양소장팀과 마지막으로 배치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으며, 지금은 회의의 결과를 팀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이다. 팀원들은 최종 배치계획이 너무 강하다고 불평이다. 사실 초기의 대안 중에 하나였으나 이미 탈락한 대안이었기에 다시 피드백 하는 것에 대한 허탈감의 표현이라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팀 입장에서보면 어제 회의가 공염불만은 아니었다. 대극장의 이미지를 바다에 떠 있는 섬(제주)의 형상으로 그려보면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축적 아이디어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 흥미롭게 받아들여졌다. 현상설계라는 것이 깊은 건축적 탐구의 작업을 거쳐 그것의 평가로써 평가음이 나와 하는 것인데, 너무 표피적인 것에 치중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하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심사위원의 눈에 들어야하고, 심사위원님을 또한 건축의 본질과 같은 심오한 문제의식에 앞서 좋은 그림을 찾는다는 것도 현실이기에 낙점되기 위해서는 자연히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네 현상설계가 아닌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손질하고 건축물 디자인을 정리해야 한다.

오전 12시

어제 서울에 있는 대학동기의 소개로 제주도에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는 건축주와의 상담이다.

제주에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무슨 법이 그리 많은지 이미 짜증이 난 얼굴이다. 건축사가 부동산업이나 개발업자도 아닌데, 지적도 한 장 달랑 갖고 와서는 '건축행위가 가능해요?' 하고 대화를 시작할 때면 무엇인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 질문에 제주에서 건축사무실을 하는 우리들도 대답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담당 공무원이 확실하게 답해주지도 못한다.

이유인즉 관련법이 동시적으로 크로스체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 즉 관련 법조항의 관계에 따른 성문화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 건축사, 부동산업자 등 어느 누구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하여간 건축주가 갖고 온 지적도를 검토하니 해발 200M이상에 위치한 중 산간 지역으로 GIS등급에서 1등급이고 목장용지로서 초지법등에 의한 초지전용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은 건축행위가 어려운 지역이다. 건축주의 표정은 굳어지고 검토를 해준 나 역시 마치 죄인처럼 죄스러운 마음으로 건축주를 배웅한다.

오후 1시

시간강사로 나가는 제주대학의 2학년 2학기 건축설계수업에 대해 교수님과 강사진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2학기에 전임교수님은 이론 강의를, 실무에 있어서는 강사진이 실기시간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학기에는 처음 설계를 하는 친구들이라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 연말에는 학과의 건축전시회도 계획도 있고 하니 조금 이른 대접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다. 매일 그저 그런 건축과 상대하는 우리 건축가들에게 학생들과 건축을 얘기하는 시간은 재충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 자신의 건축물 모두에 건축적인 실험을 시도하기는 어려운 현실상황에서 볼 때 강의 중에 진행되는 건축과정 속에는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자극이 있다.

오후 2시 30분

매주 목요일은 제주시청에 가는 날이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시 건축계획심의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오늘은 점심 겸 회의가 늦어져 30분 지각이다. 위원회의 제일 막내가 지각하면 예의가 아닌데 선배위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심의에 상정된 건은 30여

건, 한창 많았을 때를 생각하면 현저히 줄어든 건수이지만 요즘의 경기를 고려하면 적은 것도 아니다. 심의위원으로서 건축형태와 디자인부문을 담당하고 있기에 내 자신의 개인적 취향과는 달리 형태구성의 객관적 기준을 항상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형태를 제한하는 법 규정중 하나인 '경사지붕의 면적을 2/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디자인이 우수하여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은 건축가로서는 나 자신도 수긍하기 힘든 조항으로 심의위원 간에도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러한 법조항은 제주의 건축이 고전주의의 사실주의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음을 알리는 구체적 증거이며, 다원화의 패러다임을 아직까지 인정치 않는 지역적 상황일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심의 현장에서는 '상징된 건축물의 지붕 디자인이 경사지붕으로 볼 수 없다.', '이 건물은 평지붕을 인정할 만큼 디자인이 우수하지 못하다.' 등의 동시대의 건축적 상황과 유리된 논란이 있는 것이다. 건축가의 작가적 취향이 강한 작품이 심의라는 공적인 잣대로 손질되는 것을 보며 "그래 프랭크게리가 제주도에 미술관을 설계한다면 아마도 절대로 지을 수 없을 거야"라는 우스운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갑자기 잘된 건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진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건축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주도의 건축계 획심을 단 번에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나의 대학시절에 건축설계를 가르치셨던 스승님의 작품도 어의 없이 무너지는 것을 무척이나 무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아 했으니까.

심의를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며 또 한 번 심의의 문제성에 대한 토론이 오간다. 심의 과정을 통하여 건축의 평균수준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건축가들의 여지가 좁아든 것만은 사실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심의제도가 필요 없는 시대가 빨리 오

기를 기대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오후 8시

이제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벨소리가 현저히 줄고 더불어 소장을 찾는 전화도 드물다.

요즘은 현상설계 막판이라 비상시국으로 거의 매일 준 철야이다. 주말까지는 C.G회사에 도면을 보내야 하니 직원들의 키보드소리가 요란하다. 어느 소장은 사무실의 키보드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교향악으로 들린다더니 오늘의 키보드소리에서는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오전에 결정했던 형태의 윤곽이 대략 그려진 캐드도면위에 입면정리를 위해 스케치를 해나간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 지금 디자인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건축가에게 가장 고귀하며 동시에 고독한 순간이다. 스케치를 붙여놓고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스테디 모델에 의한 검증작업과 캐드 드로잉이 다음 순서이다.

다음날 새벽2시

내일을 위해 조금 쉬어야 할 시간이다. 많이 지쳐있는 모습들이다.

제주의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근래 최고의 더운 여름이었다는 1994년에도 현상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일요일이라 공조 설비를 가동하지 않는 커튼월의 사무실에서 여자 동료도 안중에 없이 거의 벌거벗고 설계 설명서를 작업하던 기억이 난다. 10년이 훌쩍 지난 일이다.

늦었지만 사무실 앞의 꼬치구이 집에서 생맥주나 한잔씩 하고 가자고 분위기를 잡았다. 여름휴가도 없이 밤낮으로 매달린 일이니 결과에 관계없이 좋은 시간이었다고 서로를 위로한다. 나 역시 이런 친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하며 건축의 어떤 마력이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건축이 존경스러울 뿐이다.

어느 지방 건축사의 하루 일상을 스케치하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라 전체가 경기가 어려워지며 신나게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이 제자리걸음이다. 동시에 우리의 주머니도 가벼워진다. 할 일이 없어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 책이라도 읽으라며 괜히 핀잔을 준다. 요즘 다이어트에 성공한 어느 개그맨이 '목욕탕에 가서 냉탕의 참 맛을 느껴려면 사우나 실에 앉아 이를 악물고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멘트가 떠오른다. 지금의 우리 건축사들은 대부분 사우나 실에 앉아 있다. 그러나 땀을 많이 흘릴수록 저 앞에 놓여있는 냉탕의 절실한 물줄기가 더욱 시원하리라. 그리고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에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건축사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